

■ 변호사 시험 합격기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법조인이 되기까지 스스로 만들어온 길 ”

- 1982년 8월 생
- 김해중앙여자고등학교 졸업(01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학·석사 연계과정 입학(07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졸업(09년)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12년)
- 제1회 변호사 시험 합격
- (現)포워드벤처스엘엘씨 한국지점(쿠팡) 법무



김 미 주

I. 법조인이 되기까지 스스로 만들어온 길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은 처음부터 결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이제까지 만들어온 것이다”

법학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로스쿨에 진학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여 법조인의 길에 들어선 것은 처음부터 정해져있었다고 하기보다는 스스로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것이기에 내가 걸어온 그 길에 대해 지면을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만약 3년간 로스쿨에서 겪어야 할 모든 과정과 시련들에 대해 알고 있는 지금 누가 나에게 로스쿨에 진학할 것인가라고 묻게 된다면 진지하게 고민해볼 것 같다. 그만큼 지난 3년간은 정말 다시는 되돌아가고픈 지 않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중에 가장 큰 부분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언에 열중해야 목표에 도달하는지, 어떠한 방법이 올바른 것인지를 모르면서 준비해야만 하는 막연한 상황이었다.

사실 로스쿨 1기들은 합격자 비율 등의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막연하게 준비해야만 했고 어느 누구도 올바른 방법을 말해줄 수 없었기에 그 방향은 상상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입학할 때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합격할 수 있는지, 로스쿨 생활에 있어서 학점관리와

변호사시험, 취업 중에서 어디에 비중을 뒀야 하는지, 취업을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3년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 등 그 어떠한 것도 정해지지 않아 나를 비롯한 로스쿨 1기 모두 막연한 두려움 속에서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두려움을 겪은 한 사람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하여 합격기를 작성하게 되었으며, 주변에 로스쿨 진학을 결정한 후배들에게 들려줬던 조언을 토대로 지면을 채워보고자 한다.

II. 로스쿨 3년간의 생활에 관하여

1. 로스쿨에서의 학사과정과 변호사시험 준비의 연관관계

로스쿨생이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며 사법시험준비생과 가장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로스쿨 학사과정을 모두 소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실 20학점가량 되는 강도 높은 로스쿨 수업과 시험을 준비하며, 객관식과 주관식, 기록형 시험까지 대비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로 힘겨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로스쿨 3학년때 이 둘 사이에 균형만 이룰 수 있다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로스쿨 1학년과 2학년에 비해 3학년에 들어서게 되면 학점에 대한 부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과목들 위주로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만약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 부담감이 굉장히 커서 변호사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된다.

2. 3년 동안 법학공부와 취업준비를 동시에 해야 한다.

총 3년의 학사과정의 로스쿨에서 법학공부와 취업준비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는 점이 정말로 큰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전체 로스쿨생의 대부분이 변호사시험을 합격하고 점수가 비공개된다는 전제하에 취업은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한다. 사실 약간 과장을 한다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로스쿨 재학중 가장 큰 관심사는 취업이며, 변호사시험이 급박하게 다가온 시점부터 변호사시험에 대한 걱정을 좀 더 크게 하게 된다.

따라서 취업에 대한 걱정으로 인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호사시험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3학년에 다가오는 부담감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이므로 3년간의 학사과정에 적절하게 변호사시험 준비에 임해야 할 것임을 진심으로 충고하고 싶다. 물론 취업준비를 소홀하게 했을 경우 변호사시험 이후 진로가 불투명할 수 있기에 로스쿨 3년 동안 법학공부를 비롯한 변호사시험준비와 취업준비를 동시에 할 수 밖에 없다.

3. 로스쿨 3학년생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

(1) 생활의 단순화

로스쿨 3학년 때 내가 항상 머릿속에 유념하며 추구해온 것이다. 사실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기에 수험생활을 함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생활을 단순화하는 것이었다. 주변 사람들과의 약속을 잡지 않고, 내 생활을 최대한 단순화하여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었는데 말처럼 쉽지 않았다. 사실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개월 정도 전부터 약속을 잡지 않았지만, 친한 지인들과는 2~3개월 전까지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의 약속을 잡으며 시간을 즐겼으며 시험 1~2주 전까지도 가장 친한 사람들과는 일주일에 한 번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영화를 보며 머리를 식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철저히 지켰던 것은 몸에 피곤이 오거나 건강에 악영향을 줄만한 놀이는 절대 하지 않았다. 술을 과하게 먹거나 저녁 늦게까지 놀거나 주변에 감기가 걸린 사람이 있거나 그럴 때에는 철저히 내 관리를 하였다. 사실 수험생활은 철저한 자기관리이며,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에 한 번 무너지면 다시 가다듬기가 굉장히 어렵다.

따라서 철저히 계획을 세우고, 하루 하루를 관리해 나아가야 하는데, 내 생활습관부터 바꾸어나가기 시작했다. 우선 아침시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 새벽에 일어나서 학교에 왔는데 이는 추후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매일 5시에 기상하여 아침을 챙겨먹고 점심으로 간단히 먹을 샌드위치와 각종 과일을 챙겨와 학교에 도착하면 6시 경인데, 도서관에 가장 먼저 들어가 불을 키고 내 자리에 앉는 기분이란 정말이지 상쾌했다. 점심 식사시간을 줄이기 위해 공부하는 중간중간 배고플 때 샌드위치와 과일, 견과류, 요거트 등을 먹었고 대신 저녁은 집에서 푸짐하게 먹으며 체력관리를 했고, 공부하며 지겨울 때는 복사집에 가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하는 등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대략적인 하루 일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5시 기상 및 아침식사, 점식식사 도시락(샌드위치, 과일 등 준비)
- 6시 학교도착 후 신문 읽기
- 6시 30분~ 아침공부 시작
- 10시 30분 간단한 산책 혹은 커피타임(약간의 식사)
- ~4시 30분 수업 및 공부
- 5시 집 도착 이후 저녁식사 및 산책과 운동
- 6시 30분~11시 저녁 공부

(2) 운동 및 건강관리

1년간 장기적인 시험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체력관리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기에

3학년에 들어서면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선택한 것은 등산이었다. 처음에는 주 1회 2시간 정도의 등산을 하다 주 2~3회로 늘렸는데, 항상 책상에 앉아 있어 다리가 붓고 책을 오래 봐야 해서 눈이 피로하고 머리가 아픈 수험생에게 등산은 아주 좋은 운동이었다.

등산을 가지 못하는 평일이나 시험기간이 급박히 다가온 경우에는 집 근처의 낮은 산으로 강아지와 함께 1시간 가량 산책을 하였고, 운동에 투자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썼다. 사실 하루종일 책상에 앉아 공부한다는 것은 집중력측면에서 좋지 않았고, 개개인마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나의 경우에는 운동을 통해 기분전환을 하며 나머지 시간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향상되었다.

사실 운동과 건강관리가 수험생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공부에 대한 부담감으로 가장 쉽게 간과하게 되는데 평소에 체력관리를 해 두지 않으면 수험생활 막바지에 몸이 버터내지를 못한다. 시험이 몇 달전으로 다가오면서부터 함께 공부하는 로스쿨 동기들 중에서도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고,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부터 감기나 각종 질병에 쉽게 걸리는 것을 많이 보았기에 체력관리는 그만큼 중요하다.

(3) 심적 평정심 유지

로스쿨 1기의 경우에는 변호사시험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기에 주변의 이야기에 쉽게 유혹될 수밖에 없었다.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 다른 학생들이 선택한 수험서나 책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닌지, 어떤 공부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본인의 페이스를 잃게 되기가 쉬웠는데, 시험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불안감이 엄습하여 흔들리게 되어 공부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특히나 로스쿨의 경우 도서관에서 다 함께 공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각종 정보들의 유익할 때도 있지만, 그 정보들로 인해 심적으로 곤혹스러운 때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시험이 몇 달 남은 시점부터는 집에서 공부하는 것을 더 선호하였고, 학교에 가더라도 상대적으로 학생이 적은 오전 시간을 활용하였고, 오후나 저녁시간에는 장소를 바꾸어 집에서 공부하는 것을 택하여 나만의 페이스를 잃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 했다. 이런 면에서 일정 부분 본인만의 공간에서 자신만의 페이스를 잃지 않고 심적 평정심을 유지하며 수험준비를 하는 것을 추천한다.

III. 변호사시험 준비에 관하여

공부방법 및 교재 등의 소개

(1) 법학시험준비에 대한 조언

법학공부는 학부에서부터 꾸준히 해왔지만, 수험생활로 법학을 공부한 적은 없었

기에 기존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선배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얻었다.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조언은 “시험준비는 1년 내내 접시를 계속 돌려야 한다.”였는데, 이는 법학시험준비는 워낙 양이 방대해서 한 과목만 치중하여 공부한다고 하여 완벽해지기는 어렵고, 시험때까지 모든 과목을 균형 있게 반복하며 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또한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시험때까지 공부가 완벽해지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는데, 어느 한 과목의 공부가 완벽한 사람이 시험에 합격하기보다는 모든 과목에 소홀히 하지 않은 사람이 합격하기에 모든 시험 과목을 지속적으로 순환해야 하며, 시험 막바지에 모든 과목이 7-4-2-1순환이 가능할 정도로 공부를 하면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따라서 나는 각 과목별로 항상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안에 어떻게든 1순환을 하려 노력하였고, 해당 과목 공부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다음 순환에 보충하기로 마음먹고 계획한 다른 과목 공부를 진행하였다.

(2) 변호사시험에 대비한 전체적인 공부방향

변호사시험은 크게 민사법, 형사법, 공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민사법의 비중이 아주 크고 사실상 2년동안 민사법의 기초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3학년이 되면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개인적으로 민사법에 워낙 치중하여 공부하였기에 난 반대로 나머지 과목들에 대해 약간 불안함을 느껴 남들과는 다소 다른 계획을 세웠다.

대부분 세 과목의 영역 중에서 민사법부터 공부하는 이들이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민사법은 가장 중요하지만 워낙 양이 방대하여 먼저 마스터한다는 게 쉽지 않다. 따라서 민사법 공부에 매달리다보면 나머지 공부에 부족하게 되고, 그만큼 부담감으로 다가오기에 난 형사법과 공법 공부를 먼저 마스터하고 민사법 공부는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 지금까지 수업을 듣고 학교 시험준비를 하며 기본서와 판례 등의 공부를 한 것을 믿고 3학년이 되어서부터는 법전과 사례집을 위주로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3) 구체적인 공부방법 소개

법전의 중요성은 어느 누구나 인지하고 있으나 민법, 형법, 헌법을 제외한 법조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공부한 학생들은 거의 없어 이를 마지막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조문스터디를 시작하여 민소법, 형소법, 행정절차법, 행정소송법, 헌법, 상법 등을 차분히 읽기 시작하였고, 조문을 보며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조문을 토대로 공부한 방법을 소개해보고자 한다. 우선 평소에 보던 법전이 아닌 최신 법전으로 구매를 한 이후 한 과목을 정해 가장 줄리거나 따분한 시간에 커피 한잔 마시며 소리내어 읽는다. 이때 조문을 읽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조문의 의미를 깊게 생각하였고, 조문과 연관된 최신 판례나 학설의 입장 등을 간략하게

조문 옆에 필기하여 정리한다. 연결된 조문이 있는 경우 실제로 찾아 읽으며 한 조문도 빠짐 없이 공부하며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평소에 간과했던 조문들을 세심하게 챙기며 조문을 기초로 한 나만의 정리노트를 만들어 갔다. 이는 추후 1년 동안의 공부에 아주 큰 도움이 되었는데, 사실 3학년때에는 지금까지 해온 많은 양의 공부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언제든지 정리할 내용이 있으면 법전에 메모를 하였고, 법전을 수백번 찾아보고 읽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모든 과목의 기초는 법전이었고, 그에 추가하여 각 과목별로 사례집 공부를 병행하였는데 사례집 공부를 하며 문제의 쟁점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고, 내가 아는 내용을 답안지로 간략하게 줄이는 작업 등을 연습할 수 있었다. 물론 사례집을 공부하며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기존에 보았던 기본서나 판례 등을 직접 찾아보며 공부하였고, 모든 과목을 공부함에 있어 한 과목당 시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여 계속 순환하였다. 참고한 사례집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민법 : 이병준 민법사례연습(민법총칙, 채권총칙, 채권각론), 박승수 민법연습

상법 : 김혁봉 상법사례연습

민소법 : 박승수 민사소송법연습

형법 : 이재상박사 신경향 형법사례연습

형소법 : 이재상 형사소송법연습, 정주형 사례 형사소송법

헌법 : 정회철 사례 헌법연습

행정법 : 조현 통합행정법

위의 사례집을 공부하며, 기존에 공부한 기본서나 판례를 다시 공부할 수 있었고 변호사시험에 대비한 문제유형이 아닌 경우에는 사법연수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비하였다. 이러한 사례집 공부는 변시 사례형에 대비한 것이며, 객관식은 법전과 판례 공부를 통해 준비하였다. 기록형은 3년간의 학사과정에 개설된 민사변호사실무나 법원실무, 검찰실무 등의 수업을 통하여 준비하였고, 3학년이 되던 해 겨울방학 1월에 사법연수원에서진행한 형사·민사프로그램을 들으며 보충할 수 있었다. 이 때 사법연수원 복사집에서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을 시간이 날 때 직접 소장작성 내지 판결문 작성 등을 하며 기록형에 대비하였다.

(4) 정리서의 활용

시험 막바지에는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7-4-2-1일 순환을 나에게 적용시켜 모든 과목을 균형있게 반복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마지막으로 하루에 한 과목씩을 볼 수 있으려면 중요한 사항만 정리된 정리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민법은 윤동환 핵심정리집과 박승수 Zip, 헌법은 정회철 핵심정리집, 민소법 박승수 Zip, 상법

은 김혁봉 최신판례, 형법 직접 정리한 노트, 행정법 조현 통합행정법 핵심키워드를 통해 정리하였고 이러한 정리는 시험 직전 1주일과 시험을 치르는 기간동안 완벽하게 도움이 되었다.

IV. 변호사 김 미 주

변호사 김미주가 되기 위해 로스쿨 3년동안의 생활은 내게 많은 것을 포기하고 인내하게 만들었지만, 그런 와중에 내가 얻은 값진 것들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지면을 통해 전하고 싶다.

우선 어려운 상황에서도 딸의 꿈을 위해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신 어머니와 3년간 자매처럼 내 옆에서 모든 뒷받침을 해준 15년지기 친구 김규량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또한 공부나 심적으로 힘들 때 옆에서 든든하게 힘이 되어준 김도년 박사, 나를 믿고 응원해주며 법학적 공부에 많은 도움을 준 정신동석사, 구체적인 시험준비에 있어 공부방법이나 교재 등에 관한 조언을 해준 김보경 선배에게도 감사함을 전하며, 학부에서부터 로스쿨까지 나의 지도교수님으로서 로스쿨 3년동안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버티며 법학공부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이병준 교수님과 모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뛰어나고 훌륭한 모든 교수님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